



국악 팬덤의 역사와 발전: 여성국극과 창극을 중심으로

Anna Yates-Lu

서울대학교 국악과 부교수

현대 한국 음악 연구 콜로퀴움, 2025년 12월 19일

국악 팬덤이란?

- 팬덤은 단순한 향유보다 더 깊고 더 적극적인 활동
- 팬덤 연구 창시자 Henry Jenkins (헨리 젠킨스, 1992)에 의하면 “participatory culture” (참여적인 문화)로 이해할 수 있다
 - Low barriers (낮은 진입 장벽)
 - Active participation (적극적인 참여)
 - Social connection (사회적 관계)
 - Collective intelligence (집단적 지식)
 - Mentorship (멘토링)
 - Media literacy (미디어 해독력)
- 현대 디지털 시대에 해당된 이론이지만 과거부터 국악 향유층의 이해에 유의미한 기여할 수 있다

귀명창의 역할

- 과거 민속음악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어 과거 향유하는 행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
- 다만 “귀명창”이란 단어의 존재로 보면 향유층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 파악
- 응원하는 방식으로 공연자의 최고의 노력을 끌어내는 힘
- 젠킨스 이론과 유사:
 - 적극적인 참여
 - 사회적 관계
 - 집단적 지식
 - 미디어 해독력
- 다만, 젠킨스의 참여적 문화와 차이:
 - 진입장벽이 높은 편
 - 적극적인 멘토링이 없다

여성 국극 팬덤

- 여성국극의 원조 스타 중 살아 계셔서 그 때 당시 팬덤 문화에 대한 파악 가능:
-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tmGf5yDYZd8>
- 현 서울 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이옥천 명창 증언에 따라 팬들이 납치하듯이 데려가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 (강혜란, 2024)
- 유명한 사례로 여성국극 스타 조금앵이 1950년대에 찍은 판들과의 결혼식 사진이 남아 있다
- 심지어 팬들의 투자로 국극단까지 만들어진 사례가 있었다 (홍석재 2013)
- 팬이 되었다가 직접 국극단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(근맥 교지편집위원회 2024)



출처: 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84261>

여성국 팬덤의 참여적 문화

- 낮은 진입 장벽: 황금기 때 순회공연을 전국 관람 가능
- 적극적 참여: <https://youtu.be/cRgoqB4y8PY?t=2253>
- 사회적 관계: 팬들끼리, 팬과 스타 사이
- 집단적 지식: 응원을 하기 위해 협업
- 새롭게 입덕한 팬들을 위한 멘토링?
- 미디어 해독력: 파생 창작 활동, 직접 국극단 입다

그러면 현대 국악 팬덤은?

- 대부분 현대 관객층이 국악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 (Sutton 2011, Harkness 2014)
- 국악 관객층은 나이 많은 분 (청춘 시절을 소환하려고 보던지, “국”악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서 보는 것으로 이해) 아니면 학생 (교과서에 들어가서 억지로 보게 하던지, 보통 부모가 시켜서 전공 하던지)
- 하지만, 작지만 열정적인 팬층 상승을 확인할 수 있고, 국악을 다르게 접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
- 케이팝이나 뮤지컬 팬덤에서 특징을 빌리는 부분도 있지만, 국악 특유 요소에 맞게 또 다르게 발전

현대 한국 팬덤 문화: 케이팝과 뮤지컬

- 케이팝의 거대한 시장 (2023년에 해외 매출수입은 1.24 조 원/8.41 억 달러 - Park Ga-young 2024)
- 뮤지컬은 한국 대중문화의 큰 역할 (2023년에 표 매출로 5천억 원/3.39 억 달러 - 고승희 2024)
- 케이팝 팬덤은 국제적으로 더 알려져 있으나, 한국 뮤지컬 팬도 스타를 위한 열정적 지원
- 팬덤활동: 공연관람, 굿즈 구매, 커피차/간식 제공, 조회수 올리기, SNS 댓글을 달기, 때창/응원법 (케이팝)
- 집단적 활동과 공유하는 경험에 강렬한 포커스 (케이팝에 대해서는 Michelle Cho 2023, 뮤지컬에 대해서는 박혜성 2017)
- 팬들은 소비에만 문화적 노동이 나타나지 않고, 2차적 굿즈와 공로도 제공 (Saeji 2024: 875)

현대 국악 팬덤 연구의 시작

- 기존 국악 연예인에 대한 연구 (Yates-Lu 2021)
- 국립창극단 간판스타 김준수/유태평양의 <절창> (2021) 공연
- 공연 끝난 뒤 주로 중년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가 공연장 계단에 대기하고 있었다
- 김준수 팬클럽 <준수한 소리>로 소개, 공연 끝나고 작은 팬미팅 진행할 예정
- 서바이벌 오디션 방송 풍류대장 (2021, jtbc) 콘서트 투어에서 재회, 김준수 사진이 있는 포스터와 사진 찍는 이벤트 진행 중
- <절창IV> (2024) 공연 때 국립극장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김수인 팬클럽이 커피차를 보냈던 것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공유
- 공연 후 작은 팬미팅을 기다리는 많은 팬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, 심지어 러시아와 중국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방문



국립극장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(ntong_ntong),
2024/05/17 스토리 공개

설문조사에 대하여

- “국악 팬덤에 대한 설문조사”의 이름으로 구글로 공유
- 개인 인스타에도 공유, 또한 찾을 수 있는 국악인 팬계정에 직접 연락해서 팬사이트를 통해 공유 부탁
- 27시간만에 110개 응답, 해외 (멕시코, 인도네시아) 응답자 2명 포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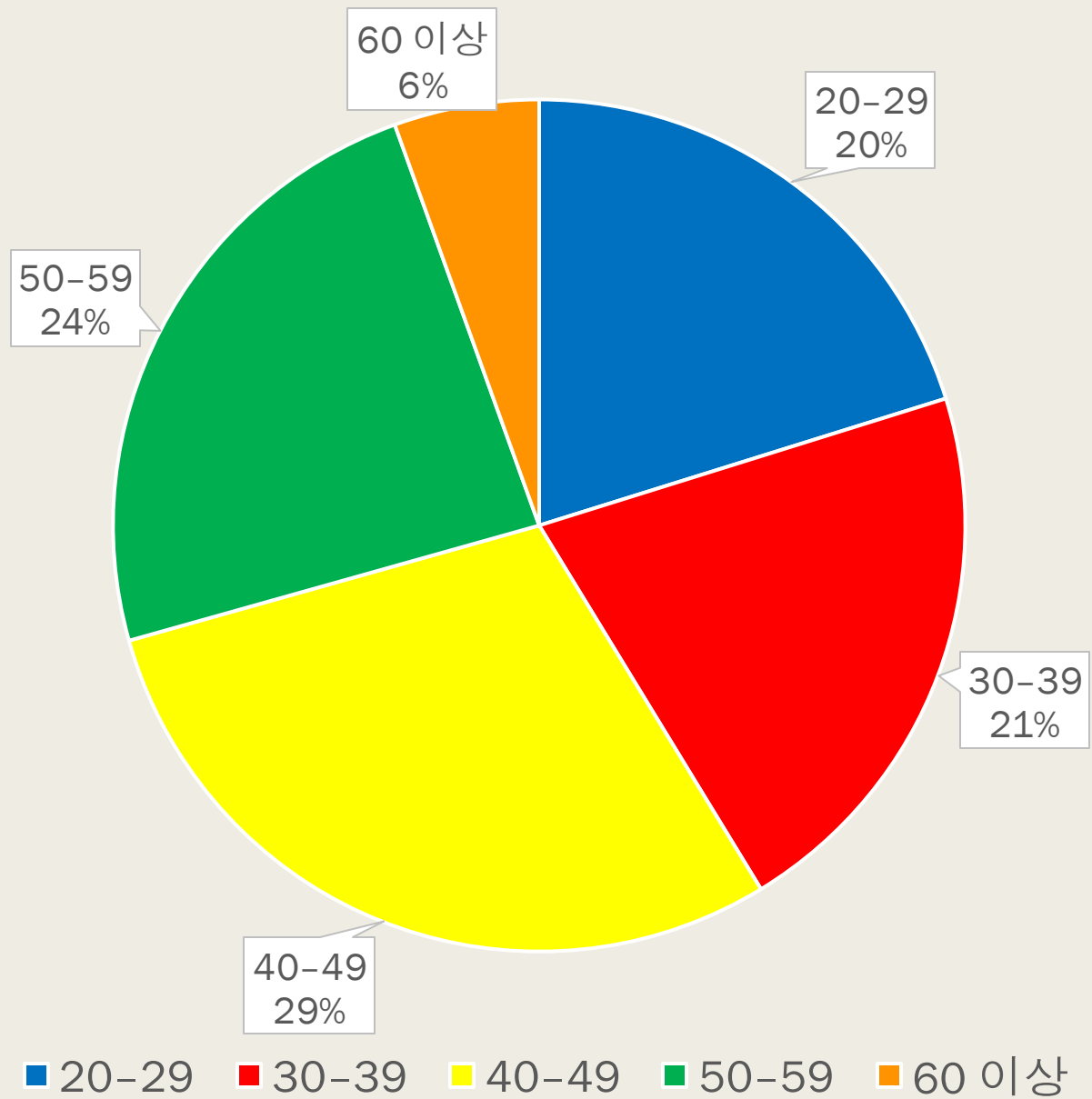
annayateslu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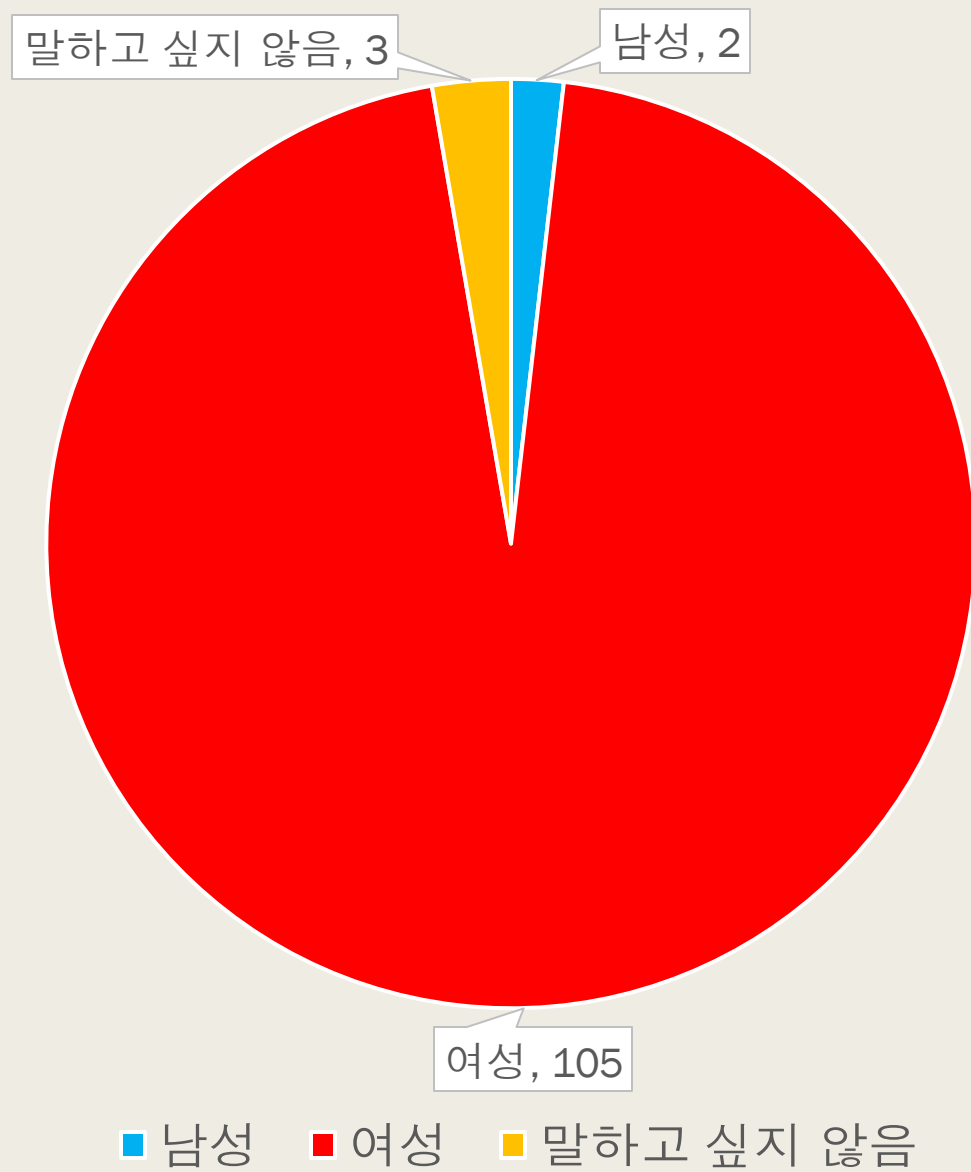
국악 팬덤에 대한 설문 조사

안녕하세요, 서울대학교 국악과 조교수 안나 예이츠입니다. 요즘 국악 팬층에 대한 연구 진행 중입니다, 다음과 같이 질문을 대답해주시고 제 연구에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이 설문조사 결과는 지금 국악과 대중문화 간의 관계를 다루는 책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(2025 나올 계획). 혹시 이 설문조사나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에게 annayateslu@snu.ac.kr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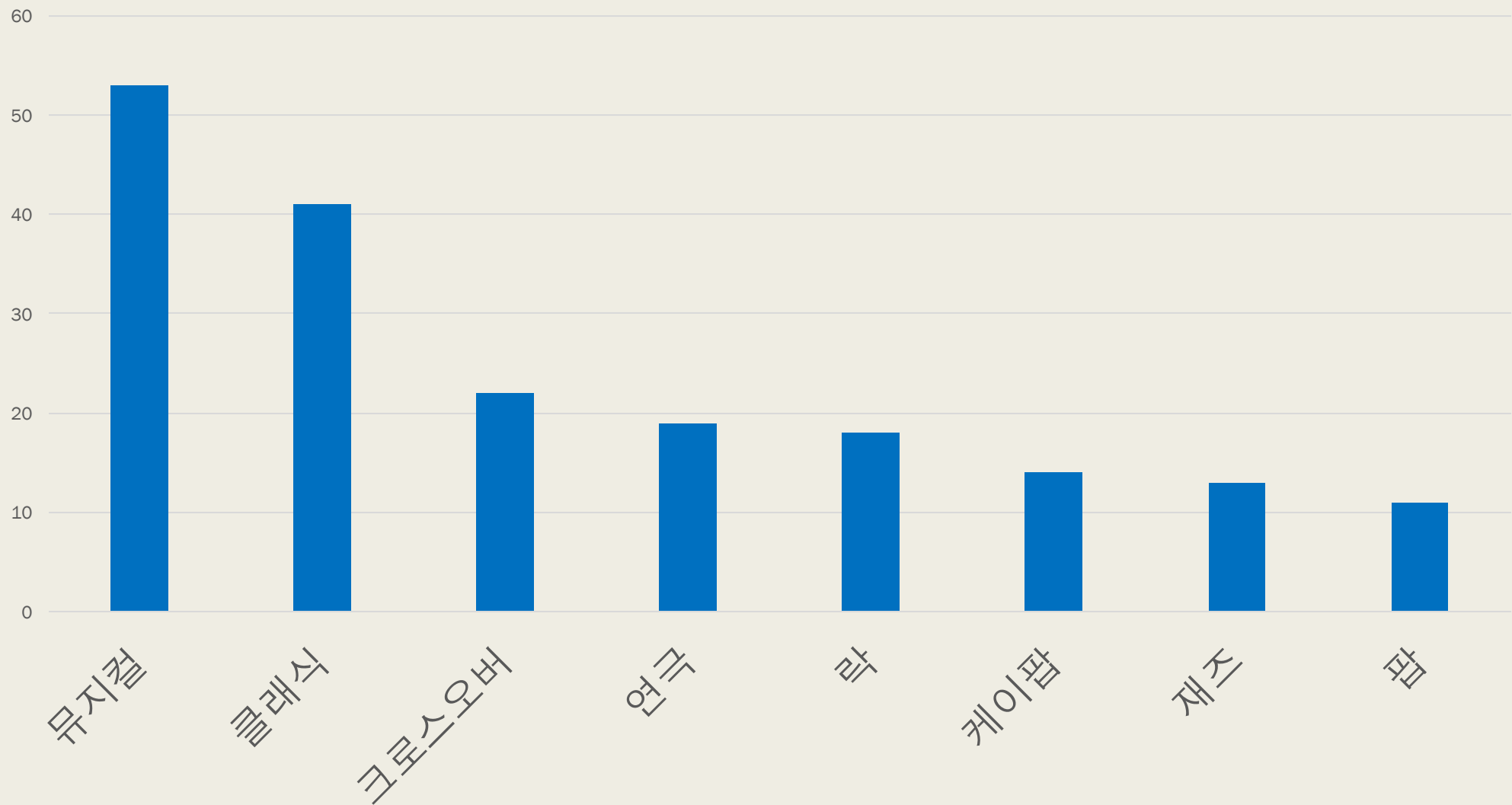
연령 분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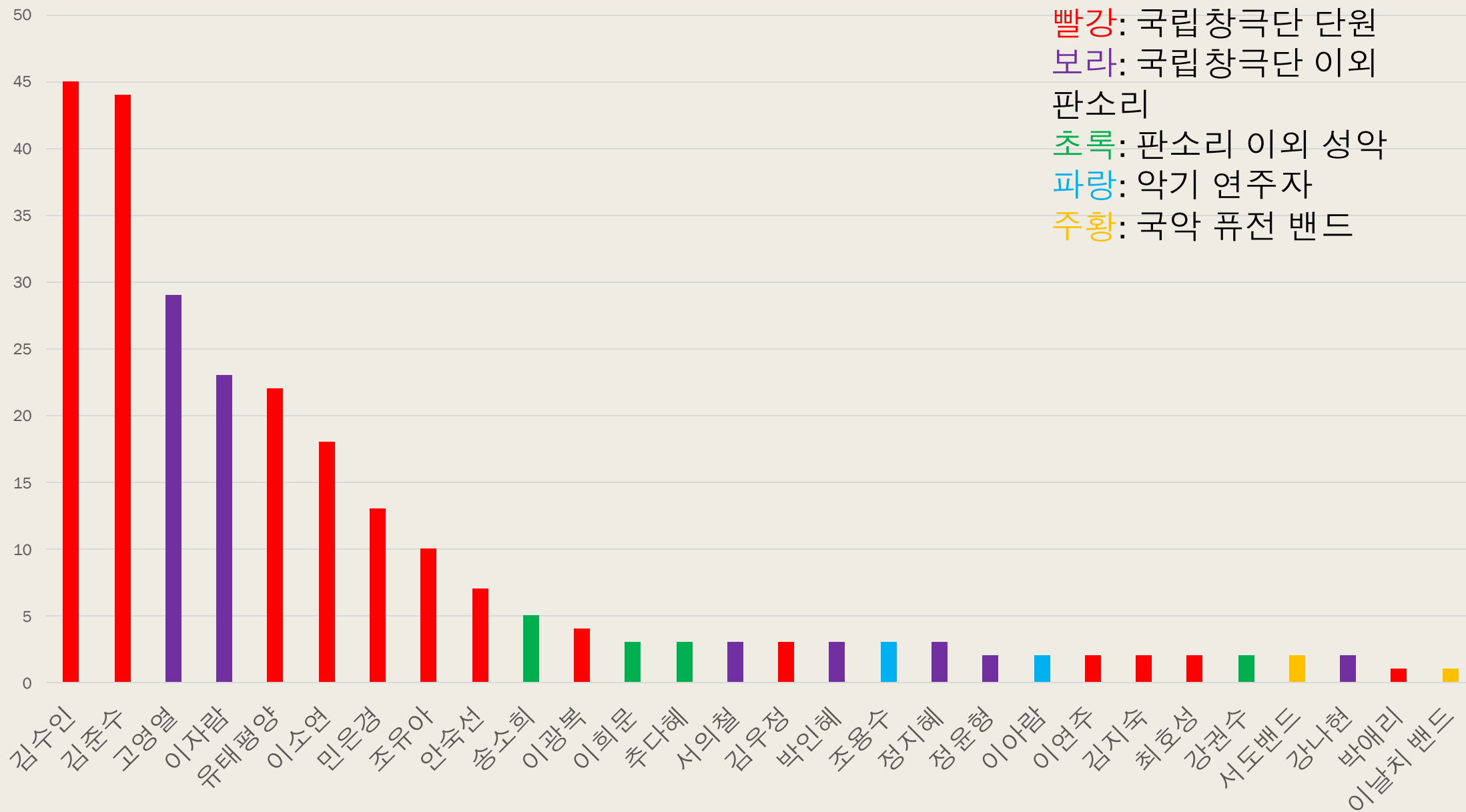
성별 분포



음악/공연 취향



제일 인기 있는 아티스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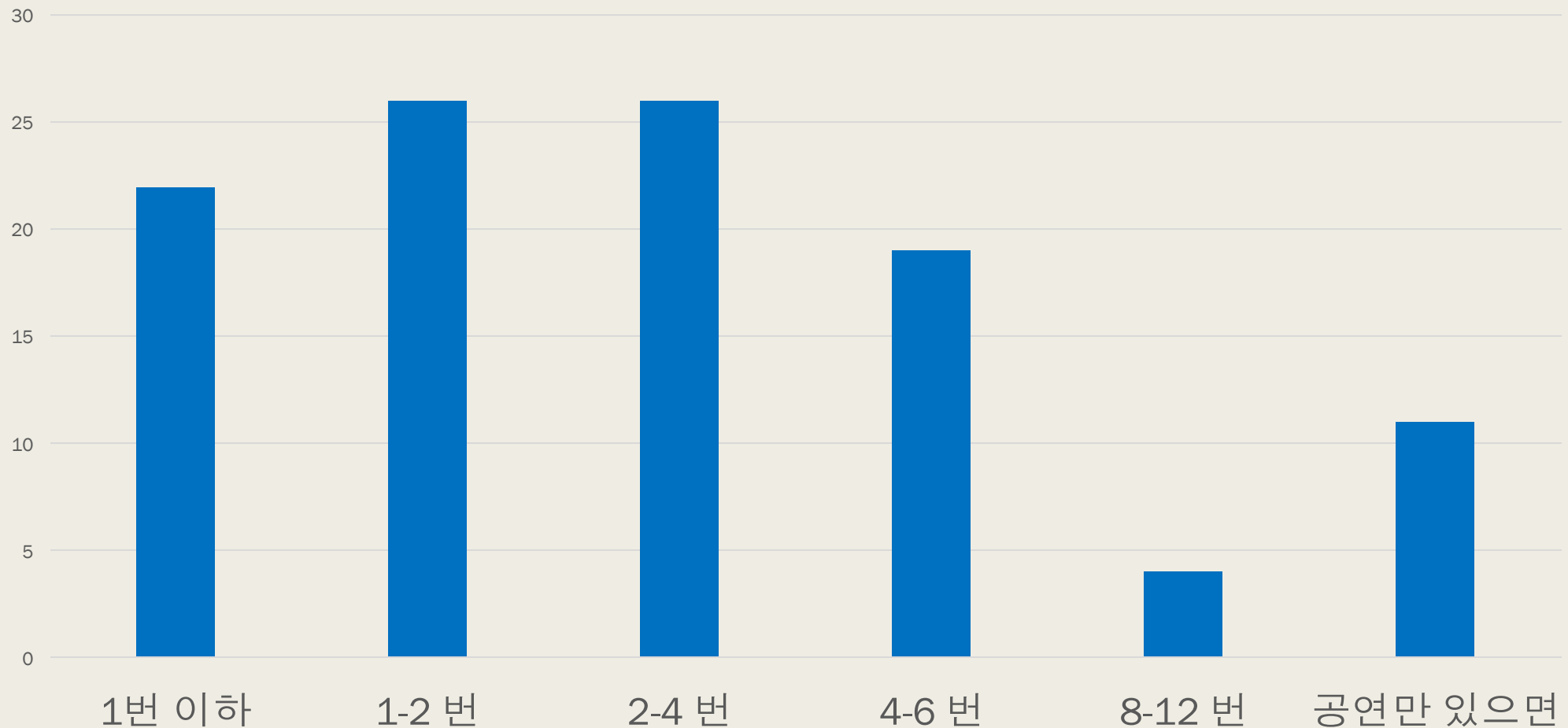
첫 접근방법

- 아티스트마다 트렌드 차이:
 - 고영얼/김수인은 <팬텀싱어> (jtbc, 시즌 3 2020, 시즌 4 2023) 를 통해
 - 유일하게 김수인 팬이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음 (20)
 - 김준수는 유튜브 알고리즘, 아니면 뮤지컬 (<서편제> 2022; <곤투모로우> 2021-2022, 2023)
 - 이자람은 신동으로서, 연국계, 뮤지컬 <서편제> (2010-2022)
 - 유태평양은 국악 신동, 자주 방송 출연
 - 국립창극단 단원은 국립극장 공연을 통해
-
- ➔낮은 진입장벽

팬 활동의 성격

- 제일 많이 언급된 방법은 공연/유튜브 영상 관람
 - SNS에서 댓글 달고,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자주 언급
 - 아주 명백하게 지원의 금전적인 성격 언급
 - 앨범 구매, 하지만 디지털화로 인해 많은 앨범은 온라인으로만 존재, 한계적으로 CD/LP/USB 형식으로 발매
 -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 않았지만, 일부러 영상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도 언급 (“data fandom/데이터 팬덤” Zhang and Negus 2020)
-
- → 적극적인 참여 + 미디어 해독력

한달에 몇번씩 좋아하는 아티스트 공연을 보러 가는지?



응원법이 되는 공연 관람

- 편견으로 보명 한 달에 2.5번씩 공연 관람이 확인되는데, 극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:
- 해외 팬들은 한번도 보지 못 한 경우도 있다
- 지방 팬들은 접근이 한계적이라 훨씬 덜 볼 것이다
- 어떠한 팬들은 아티스트를 국내 어디든 따라다니고, 심지어 한 달에 12회 공연 관람한 경우도 있다
- 2024년 국립창극단이 런던 <리어> 공연할 때, 김준수 팬계정 중 여러 개 올린 사진을 통해 영국까지 따라가고, 그 다음에 이어가는 벨기에 공연까지 갔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

팬/팬, 아티스트/팬 간 관계 관리

- 많은 팬들은 소속사의 아티스트 일정 공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불만, 오히려 아티스트들이 직접 공유해야 하는 상황 (이는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, 국악에 한하여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- Kim Jungwon 2018: 5)
- 직접 팬카페와 소통해서 오는 공연에 대해 알리는 경우가 있다
- 2024/02/14일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준수는 적극적으로 팬덤 관리에 대해 증언: 관객 예절에 대한 안내, 다른 국악 장르에 대한 교육, 다른 아티스트의 공연 추천 등
- 아티스트 일정으로 공유하기 위한 특유 팬계정도 존재
- 아티스트의 공연과 팬과의 소통을 촬영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다: 케이팝 아이돌 팬덤 홈마와 유사 (Kim Jungwon 2018)
- ➔사회적 관계 + 집단적 지식



시나브로

@daily_____js · 15.5k subscribers · 339 videos

소리꾼김준수님을 좋아합니다♡ ...more

🔔 Subscribed ▾

Home

Videos

Shorts

Playlists

Posts



Latest

Popular

Oldest



20251202 소리꾼김준수 - 비나리 축원
Ver.판소리스케이프 with 대금 이아람 (...)

4.6k views · 4 days ago



20161109 소리꾼김준수 - 창극 [트로이
의 여인들] 초연 中 헬레네 넘버 no one...

1.2k views · 10 days ago



20251201 소리꾼김준수 부분 편집본 -
[문화 n 공감] 부산 국악방송 개국14주...

3k views · 2 weeks ago



20250911 소리꾼김준수 &소리꾼박애리
- 마당놀이 [춘향전] 中 '춘향 아씨 나오...

3.9k views · 2 weeks ago





**고사 지내러 나오라며
관객 영업 잘하는 소리꾼**

20241130 소리꾼김준수 -
마당놀이 전 고사지내는데...

4.9K views



**카메라에 쌍브이 해주는
팬사랑꾼 소리꾼**

20241110 소리꾼김준수 -
팬들의 카메라에 쌍브이로...

1.7K views



화제가 된 춘향가 방자부분

20241019 소리꾼김준수 -
판소리 춘향가 中 방자 분...

2.5K views



**힘한 소리꾼의
리드미컬한 추임새감이**

20241019 소리꾼김준수 -
힘한 소리꾼의 리드미컬한...

1.6K views



**퇴근이 너무 썬나는
집에가자 벨기에토선생**

20241009 소리꾼김준수 -
퇴근이 너무 좋은 퇴근조...

2.6K views



com/shorts/WWX9e3K5rLM



추가 응원 방법: 광고/깃발



출처: (옆) 김준수 팬사이트
인스타그램 계정 (_js_supporters),
2024/04/14 공개; (위) 김수인
그로스오버 그룹 크레즐
팬사이트 인스타그램 계정
(crezl_230519_), 2024/08/16
공개



출처 (위): 이자람 공개
인스타그램 계정 (jjjjjjjjjaamm),
2024/08/02 공개

추가 응원 방법: 간식과 커피차

출처: 국립극장 공식
인스타그램 계정
(ntong_ntong),
2024/06/14 공개된
스토리



출처: 남성창극
살로메 공식
인스타그램 계정
(arko_salome),
2024/06/01
공개된 스토리

퇴근길의 중요성

- 공연 끝나고 인사하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, 공식적으로 팬카페를 통해 공유된 스케줄로 만들어진 것을 김준수로 시작한 걸로 파악
- 팬들이 모인 곳에 아티스트와 이야기 나누고, 질의응답 시간, 선물 전달
- 예의: 협연자 있는 경우 공식적인 퇴근길 하지 않고, 지나가면서 짧은 인사만 한다
- 못 간 팬을 위해 이 소통이 촬영하고 공유한다:
<https://www.youtube.com/shorts/q67qEKj3n9U>
- 공식적으로 “퇴근길”이라고 부르는 것은 케이팝/뮤지컬 맥락에서 전달
- 특이한 점은 모든 설문조사 응답자가 공통인 부분은 아니다, 팬카페 존재와 강렬하게 연결

팬들의 국악계에 대한 이해

- 국악계에 대한 세밀한 이해:
- 퓨전은 덜 예술적으로 인식된 것에 대한 이해, 하지만 국악계 입문 방법으로 강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 반대
- 특히 퓨전의 금전적인 중요성이 대한 인식, 그래야 전통 레퍼토리도 계속 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
- 홍보, 일정 공유, 굿즈 부족에 대한 비판 → 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은데 시스템이 안 따라가는 상황
- 사회적인 부분은 개인마다 큰 차이 확인: 적극적으로 팬들 간 소통하고 같이 공연 관람을 위해 만나도, 단톡방 만들고 등에 반대 혼자서 스타에만 집중하고 싶은 경우도 있다
- 적극적으로 알고 싶은 정보를 검색, 이제 선택한 장르에 대해 많이 알고, 심지어 직접 연주하는 경우도 있다
 - 어떠한 기관에서 이를 활용해서 아마추어 워크샵/추임새 워크샵 개최
- → 단순한 향유보다 적극적인 참여적 활동/미디어 해독력

설문조사의 약점

- 주로 데이터 모집은 SNS (인스타그램) - 팬 사이트와 연결을 통해서 경감 노력, 하지만 특히 나이 드신 세대와의 접근이 어느 정도려 놓쳤는지 확인 불가
- 결국 팬덤 활동에는 인터넷 사용은 필수
- 팬들 증언에 따라 19세 이하 팬도 존재하나, 설문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- 젊은 나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에 한계 있는 가능성
- 데이터 모집 방법으로 인해 데이터가 더 젊은 쪽으로 이끌 가능성
- “팬”이란 단어로 인해 생기는 우려: 단순한 향유와 팬덤의 차이 중에 스스로 제외할 가능성
- “국악”이란 단어로 인해 생기는 우려: 퓨전 연주자로서 방송에 많이 보이는 연주자가 설문조사에 의외로 보이지 않다
- 남서 아티스트에 대한 더 높은 인지도? 설문조사 할 때 여성 아티스트 중 이자람 팬계정만 확인
- 요즘 여성 아티스트에 대한 팬계정도 슬슬 보이는데 남성 아티스트 만큼은 보이지 않고, 이에 대해 팬들한테 비난 받았다

현대 국악 팬덤의 참여적 문화

- 젠킨스의 팬덤에서 나타나는 참여적 문화로 보면, 지금 국악 팬덤에서 많은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:
 - 낮은 진입 장벽: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쉬운 첫 입문
 - 적극적인 참여: 이미 많이 적극적이고,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팬들이 존재
 - 사회적 관계: 모든 팬들에게 똑같이 중요하지 않다, 꾸준한 지원을 통해 팬/아티스트간 강화된 관계도 확인
 - 집단적 지식: 포스터 행사/커피차 보내기 등 집단적 활동으로 더 많은 지원 확인
 - 멘토링: 팬 간 멘토링보다 국악계를 아직 낯설어하는 팬들 위해 아티스트들이 직접 나서서 교육하는 형상
 - 미디어 해독력: 국악에 대해 더 깊은 이해 추구, 직접 배우기까지 하는 경우도 확인, 또한 뮤지컬/케이팝 팬덤에서 배운 대중 매체 활용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확인

나가며

- 여성국극 사례에서 확인 했듯이, 국악 팬덤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형상은 아니라, 오히려 과거의 행동의 부활로 해석 가능
- 기관에서 팬덤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상승 (아티스트 위주의 홍보 방법, SNS에서 팬들과 더 친밀한 교류)
- 그래도 많은 팬들을 위해 부족한 걸로 판단: 케이팝 팬처럼 더 많이 접근하고,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경우가 많다
- 부작용: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이미 이름 있는 아티스트 위주 활동,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티스트들의 생존이 더더욱 어려워진다
- 팬덤 접근 방법으로 인해 공연 기획과 소비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확인: “케이팝 형식” 홍보방법을 원하는 팬들의 욕망은 장르의 경계를 넘으면 여전히 적합할까?
- 스캔들의 위험: 연예계에 요즘 연속으로 나오는 스캔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, 스타에 너무 의존되면 생기는 위험성
- 스타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높은 기대치: 국악계의 스타 중에 이러한 스캔들이 생기면 과연 현재 시스템이 버틸 수 있을까?
- 스타들의 심리적/신체적 건강: 인기를 계속 끌기 위해, 또한 팬들의 요구에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 공연과 방송활동으로 쉴 틈 없이 바쁨

감사합니다

Bibliography

- Cho, Michelle. 2023. "K-Pop and the Participatory Condition: Vicarity, Serial Affect, and 'Real-Life Contents'." In *The Cambridge Companion to K-Pop*, edited by Suk-Young Kim, 231–248. Cambridge: Cambridge University Press.
- Geunmaekgyijopyeonjibwownhoe. 2024. '[86호][여성] 지금부터 막을 올립니다 [[No. 86][Women] Now the curtain rises]' *Brunch 10*, published 17/04/2024. Available online at: <https://brunch.co.kr/@geunmaek/82>. Accessed 18/12/2025.
- Go, Seunghui. 2024. '5000억 시장 K-뮤지컬의 위기?!... 졸작 스타 의존도 없애라면? 2024 전망 [500 billion won market K-musical in danger?!...What if reliance on poor quality productions and stars removed? Outlook for 2024]' *Herald Business*, published 01/01/2024. Available online at: <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3292228>. Accessed 28/12/2024.
- Harkness, Nicholas. 2014. *Songs of Seoul: An Ethnography of Voice and Voicing in Christian South Korea*. Berkeley: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.
- Hong Seokjae. 2013. '사상팬 원조는 "여성 국극"에 있었다 [The origin of sasaeng fans was "yeoseong gukgeuk"]' *Hangyeore*, published 16/04/2013. Available online at: <https://www.hani.co.kr/arti/culture/movie/583094.html>. Accessed 18/12/2025.
- Jenkins, Henry. 1992. *Textual Poachers: Television Fans and Participatory Culture*. London: Routledge.
- Kang, Hyeran. 2024. "'극성 팬에 납치도 당했지'... '원조 정년아'의 그때 그시절 [I was kidnapped by extreme fans"... Back in the day with the "original Jeongnyeoni]" *The JoongAng*, published 14/11/2024. Available online at: 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91843>. Accessed 18/12/2025.
- Kim Hye-jung [Kim Hyejeong], dir. 2012. *왕자가 된 소녀들 [The Girl Princes]*. Seoul: Play Girls Play.
- Kim, Jungwon. 2018. "Home and Homma in K-Pop Fandom: From Fan Sites and Paparazzi to Black Market and Cultural Producers." *Journal of Korea Culture Industry* 18 (3): 1–10.
- Park, Ga-young. 2024. 'K-pop industry raked in \$900 million from overseas last year, data shows.' *The Korea Herald*, published 24/07/2024. Available online at: <https://www.koreaherald.com/article/3439905#:~:text=overseas%20last%20year,-.In%202023%2C%20the%20estimated%20overseas%20sales%20of%20K%2Dpop%20amounted,percent%2C%20or%20315.9%20billion%20won>. Accessed 28/12/2024.
- Park, Hye Sung. 2017. "한국 뮤지컬 마니아 관객 활동의 문화 정치적 함의 [Cultural Politic Implication of Korea Musical Fandom]" *Media & Society* 25(1): 37–96.
- Sutton, R. Anderson. 2011. "'Fusion' and Questions of Korean Cultural Identity in Music." *Korean Studies* 35:4–24.
- Yates-Lu, Anna. 2021. 'Plotting the course: artistry, celebrity and kugak in South Korea.' *Celebrity Studies* 12(2): 250–266.
- Yoo Su-yeon [Yu Suyeon], dir. 2025. *여성국극: 끊어질 듯 이어지고 사라질 듯 영원하다 [Women's Gukgeuk: Enduring on the Edge of Time]*. Seoul: The Activist.
- Yu, Juhyeon. 2023. "'이렇게 재밌는 거였어?' 여성극 부활 조짐 [It was this fun?" Signs of a revival of women's theatre]" *The JoongAng*, published 12/08/2023. Available online at: <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84261>. Accessed 18/12/2025.
- Zhang, Qian, and Keith Negus. 2020. "East Asian Pop Music Idol Production and the Emergence of Data Fandom in China." *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* 23 (4): 493–511.